

교생실습 일기

교생 대접 보다는 젊은 여자로 받아들여져

남자 선생님들 술좌석 놀이상대 취급에 환멸

이 글은 한 여대생이 한달간의 교생실습 기간 동안 자신이 '교생' 으로서 대우받기보다 '여자' 로서 대우받은 성차별적 경험을 일기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혹시 앞으로 교생실습을 하게 될 후배에게 누가 될까 해서 필자의 학교와 이름을 밝히지 못함을 양해하기 바란다.

- 편집자주 -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분'이라는 어린 소녀같은 생각은 이미 벗어나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된 것은 막연하게나마 '교사란 직업은 다른 직업과 달리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 참된 인간을 만들려는 숭고한 행위'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였다. 그러나 나의 이런 기대는 교생실습 첫날부터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

1990년 4월 30일

7시50분. 출근시간보다 20분이나 일찍, 나는 "내가 많이 컸구나" 하는 뿌듯함과 한 달 동안 배우게 될 새로운 일들에 대한 설렘으로 가슴이 부풀어 교문을 들어서고 있었다. 그곳은 중·고가 함께 있는 남학교였다. "와! 여자다." 날씨는 분명 화창한데 벼락이 치고 있었다. 4, 5층 창문에 뽀뽀 내린 까만머리들이 만드는 날벼락이 커다란 운동장의 조그만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내게 떨어졌다. 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여자라고? 아니야. 난 분명 여자지만 너희에게는 아니야. 난 교생이지 여자가 아니라구."

1990년 5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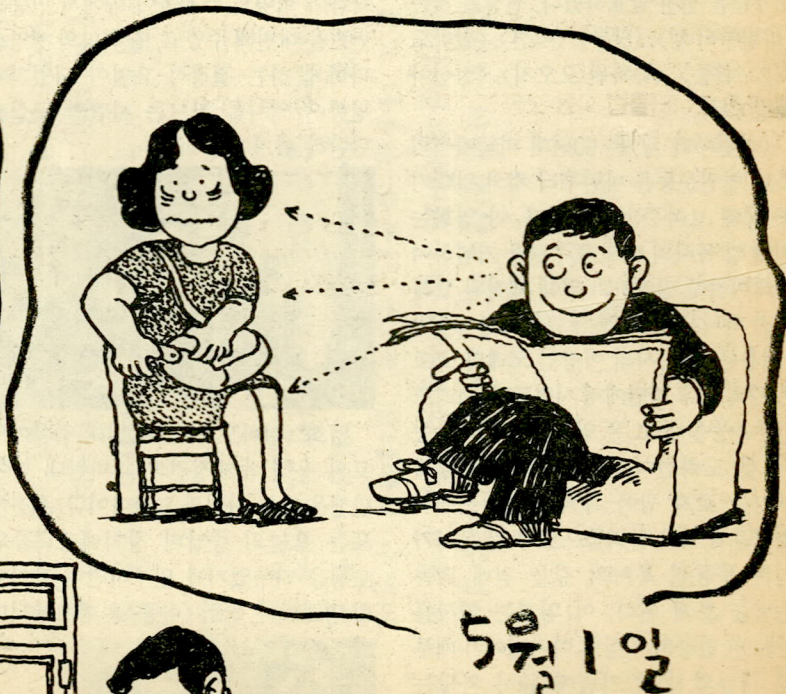
직원조회전에 담임선생님께 인사를 드렸다. 자리에 앉은 채 싱글싱글 웃는 담임선생님의 눈길은 어느새 내 머리끝에서 발끝을 훑고 있었다. 직원조회시간에는 한층 더 거북한 일이 생겼다. 교생들은 일반 나무의자에 앉게 된 반면 옆 교무실에서 회의를 하러 모이신 선생님들은 그보다 앉은 자세가 훨씬 낮은 쇼파에 앉게 배치가 되어 있었다. 자연 남자선생님들의 시선은 조회 20분 동안 교생들의 다리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 넣을 수 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은 그저 시선에 무관심해지려는 노력뿐이었다.

1990년 5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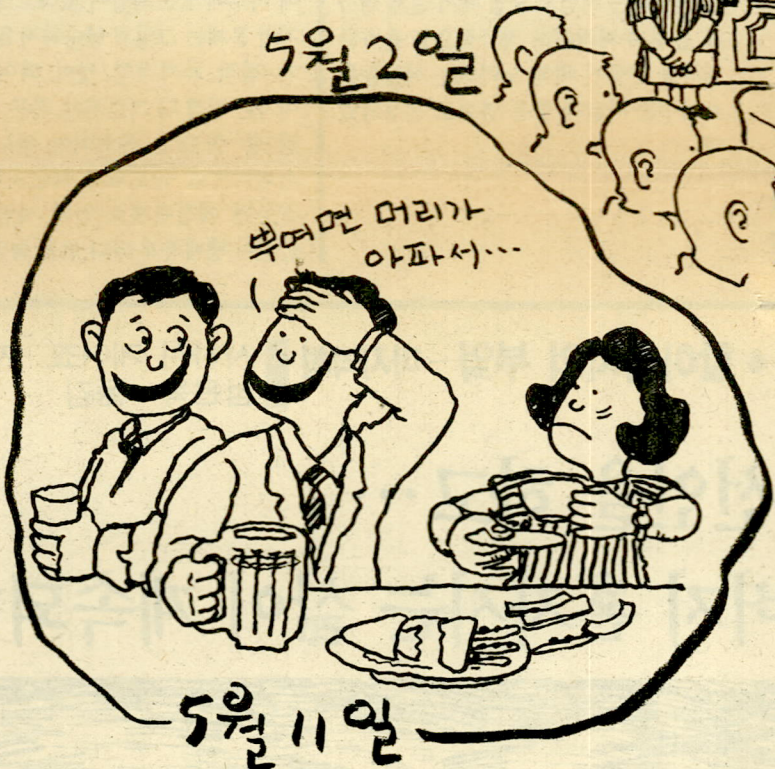
오늘은 우리 반 아이들과 처음 인사를 나누는 날. 약간은 긴장한 채로 교실 문앞에 다달았다. "뒷문으로" "네?" "뒷문으로 들어가서 내가 소개하거든 앞으로 나와 인사하세요" "뒷문으로요?" "네" 그날 아침 교실 문앞에서 주고받은 담임과의 대화내용이다. 학생이 전학을 와도 함께 들어가는데... 비록 서너 시간뿐이지만 아이들을 가르칠 입장에 있는 내게 뒷문 출입을 요구한 이유를 내가 여자기 때문일거라고 짐작한 것은 나의 지나친 오해였을까? 그러나 선생님 말에 의해, 아니 남자의 지시에 의해 뒷문에서 서 있다가 차분히 걸어나와 사뿐히 인사하고 자기자리가 뒷문쪽인 양 다시 돌아가는 여자 교생의 모습이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인사를 끝내고 담임의 눈치속에서도 앞문쪽에 자리를 잡고 서 있었다. 구석이었지만 뒷문쪽보다는 당당하다고 생각되었고 당연한 자리라고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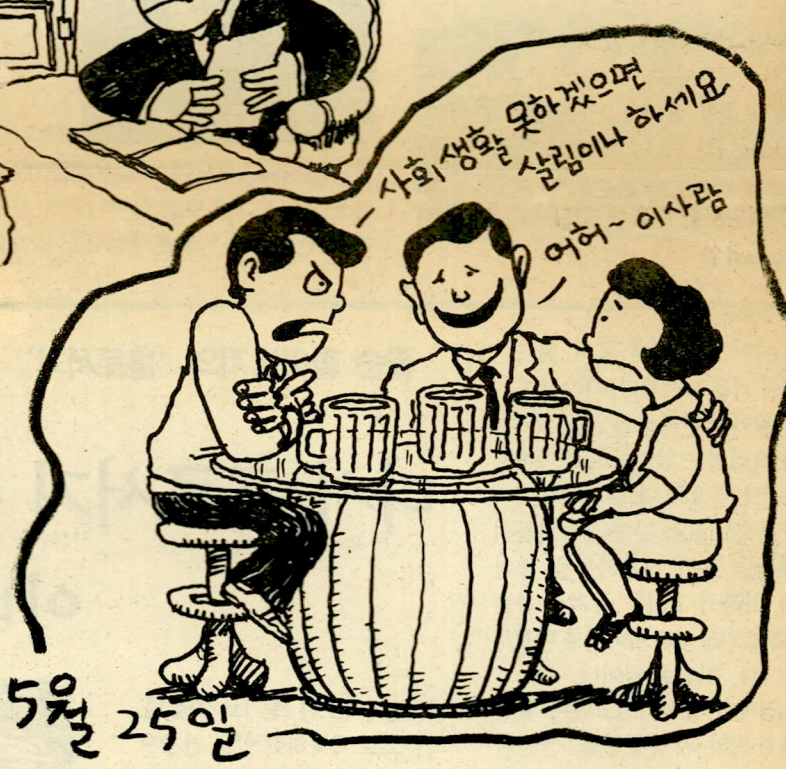
4월30일



5월1일



5월11일



5월25일

1990년 5월 11일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수업이 일찍 끝나고 과학과 회식을 갖게 되었다. 교생실습을 마친 선배들이 회식이라고 해서 디스코 텍이다 스탠드 빠다 하며 같이 다녀야 했었던 경험담을 익히 들었던 나는 일견 걱정도 됐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딱딱한 분위기에서 할 수 없었던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나 자신의 특별한 교수법 혹은 그밖에 아이들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회식에 참여 했다. 한 선생님이 "이번 교생은 참 양전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다른 한 선생님이 "색이 안 나타나서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색? 무슨 색을 말하는 걸까? 또 한 선생님이 "요즘 재미있는 영화가 없죠? 최근 영화 중 뭐 볼 만한 게 있나요?"라고 묻자 "진하려면 확실히 전해야지. 뿌어면 머리가 아파서..." "어느 백화점 앞에 서 있으려나 요즘 치마길이가 짧아져서... 오랜만에 보니 기분이 이상하더라"라는 대답이 나왔다. 계속되는 이런 내용의 대화에 교생들은 묵묵부답일 수 밖에.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교생들은 커피를,

선생님들은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1990년 5월 25일

실습기간 종료 전날이다. 선생님들이 끝나고 차나 한 잔 하자고 했다. 난 다른 약속이 있어서 거절했지만 30분이면 된다는 압력(?) 속에서 학교 앞 카페에서 차를 마시게 되었다. 그러나 선생님 한 분이 "약속 깨세요. 이런 기회가 또 있는 것도 아닌데. 교생실습 성적처리를 아직 안했을까?" "맞아, 성적을 아직 안 냈구나!"라며 은근히 협박을 가해 왔다. 술직히 성적이라는 말에 기도 꺾이고 우리 과에서 연구수업을 한 탓에 내일 평가회에서 할 말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에 어쩔수 없이 친구와의 약속을 어겨야 했다. 자리는 호프집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연구수업에 대한 평가회 이야기는 잠시뿐 우리들에 대한 평가회가 되고 말았다. 이번 교생들은 적극성이 없다면서 "이것도 사회생활이요. 이렇게 사회생활 못하겠으면 살림이나 하세요"라고 충고해 줬다.

실습 첫날 교문을 들어서며 "내가 많이

컸구나"라고 느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던가. 실습을 끝내면서 비로소 나는 "내가 많이 컸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단 한달 간이지만 졸업후에 내가 겪어 나가야 할 사회의 맛을 조금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배울 것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나를 가장 당혹스럽게 한 것은 내가 한 사람의 '교생' 으로서 대우받기보다는 '여자'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었다. 남학생들이야 아직 어리니까 그렇다고 이해한다 해도 남자선생님들조차 미래의 동료 교사인 후배를 이끌어 준다고 보다는 젊은 여성의 모습으로 같이 차를 마시거나 술좌석에 같이 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가장 남녀차별이 없다고 인식되는 교직에서조차 이렇게 미묘한 문제들이 숨어 있을 줄이야. 그러나 쓴맛을 경험한 이번의 '맛보기' 사회생활이 가깝게는 졸업 후를 멀게는 앞으로의 내 삶을 단단히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되어 줄 것으로 믿는다.